



조건 제7976호 대표전화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음력 10월 13일)

전남, 그린바이오산업 키워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

농식품부 ‘육성지구’ 첫 지정...3대 분야 ‘융합형 모델’
나주 ‘식품소재’, 장흥 ‘천연물’, 순천·곡성 ‘미생물’ 거점
R&D·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핵심 경쟁력 확보

전남이 1700조원 규모의 글로벌 그린 바이오 시장을 향해 본격적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에서 전남이 식품소재·천연물·미생물 3대 분야를 하나의 체계로 묶은 전국 유일의 융합형 모델로 인정받으면서, 풍부한 생물 자원과 연구 인프라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연결되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에서 ‘AI 융합 글로벌 그린바이오 허브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올해 1월 시행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기존 단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전략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추진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축산물, 미생물, 천연물 등 농업생물자원에 바이오·정보기술(BT+IT)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전남의 지정 면적은 230만5095㎡로, 전남도를 비롯해 나주시·곡성군·순천시·장흥군을 거점으로 조성된다. 기업 10

육성지구 지정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도 집중된다. 바이오파운드리, 소재 산업화 시설 등 주요 국비 인프라 사업 참여 시 우선권을 확보하게 되며, 지구 입주기업은 제품 상용화 지원, 식품 기능성 평가 등 각종 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연구개발(R&D)·실증·사업화·수출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연계 지원받을 수 있는 One-Stop 체계도 마련된다.

이 같은 지원은 농가와 기업에 모두 새로운 기회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는 표준화된 스마트팜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안정적 원료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통합정보시스템(공공형 CDMO) 기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산·학·연 협력을 튼튼히 구축해 전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대한민국 농업미래를 이끄는 중심지이자, 글로벌 그린바이오 산업의 대표 모델로 만들겠다”며 “핵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인재양성부터 스타트업 발굴, 기술개발·실증·사업화·시장진입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1조2000억달러에서 2031년 3조9000억달러로 3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전남에서 소외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이 제막됐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는 1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사랑의 온도 올리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날 오전 전남도청 광장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허영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 아래).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소외이웃에 온기”...사랑의 온도탑 62일 대장정

광주 51억2000만원·전남 113억9000만원 모금 목표

광주·전남 지역 소외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이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오전 10시 30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구제길 광주사랑의열매 회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주요 기관 단체장과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 서부권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은 이날 오전 11시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허영호 전남사랑의열매 회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모상호 전남경찰청장 등 100여명이 자리했다. 전남 동부권 제막식은 2일 오후 2시 여수시청 광장에서 진행된다.

올해 캠페인 슬로건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광주·전남’이다.

이번 캠페인의 바로미터인 사랑의 온도탑 수순주는 목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오른다. 목표액이 달성될 경우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가리킨다.

▶2면에 계속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소부장기업 프리모, 세계 무대 진출

기아 PBV 글로벌 협력사 선정...광주시·전북도 지원

광주시는 미래차 소부장 기업 ㈜프리모가 기아의 차량기반 확장 플랫폼(PBV) 협력기업으로 선정돼 ‘2025 글로벌 PBV 컨버전 파트너십 데이’에서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외 주요 특장 기업에 참여해 기아의 PBV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PBV 컨버전 파트너십 사업’을 처음으로 공식 소개한 자리다. 1부 테크니컬 세션에서는 기아 PBV 전략이 발표됐고, 이후 기아와 프리모 등 협력기업에 파트

너 인증패가 수여됐다.

프리모는 차량용 전장부품(조명장치 등)과 특장차량 제작(하이루프, 시트 포함)에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기존 생산기술에 신기술을 결합하려는 연구개발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북도는 지난 3월부터 10여차례 협의를 거쳐 소부장 특화단지 공동 협력 모델을 검토했다. 광주의 이중접합기술 기반 차체·세시 기술과 전북의 강도·경량화 탄소기술을 융합해 프리모의 PBV 기술에 적



기아의 차량기반 확장 플랫폼(PBV) 협력기업으로 선정된 윤성훈(좌)과 프리모 대표이사(오른쪽).

용하는 구체적 방안도 마련했다.

프리모는 해당 융합기술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위한 승·하차 편의성 개선 기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의 대피시간 확보 기술 등을 기아 PBV 모델 ‘PV 5’에 적용하는 사업계획을 제안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광남일보
신춘문예 작품공모



부문 및 고료

- 시 부문 : 5편(당선작 1편·상금 150만원)
- 단편소설 부문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당선작 1편·상금 200만원)
- 동화 부문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당선작 1편·상금 150만원)
- 평론 부문 (문학·미술·무용·연극 등) :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당선작 1편·100만원)

응모요령

- 원고는 A4 용지에 출력.
- 응모작은 미발표 순수창작품일 것.
- 당선작의 경우 추후 표절 및 동일 작품 복수 응모는 당선료 취소함.
- 갈봉투에 응모분야와 작품 편수 기재.
- 원고 끝에 이름(필명일 경우 본명 명기)과 나이, 약력, 주소, 전화번호 명기할 것.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된 날로부터 1년간 광남일보에 있음.
- 가작은 당선작의 상금 50%를 지급함.

접수마감 및 당선작 발표

- 2025년 12월 17일(수) 오후 7시까지 도착 작품에 한함
- 2026년 1월 1일자 신년호 지면

접수처 및 문의

-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광남일보 문화체육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방문 및 우편접수)
- 문의 (062)370-7090, 7234.

시·단편소설·동화·평론 부문 ... 12월 17일(수) 접수마감

광남일보가 한국문학과 지역문학을 이끌면서 미래 K-문학을 선도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예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2026 광남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문학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쟁력을 더할 패기 있는 신예 작가들의 당찬 도전을 기다립니다. 광남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학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